

## 원시주의(Primitivism)를 반영한 패션디자인에서의 소재표현기법 연구<sup>+</sup>

김진영\* · 간호섭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의상디자인과 석사과정\*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섬유미술패션디자인과 교수

## A Study on Textile Expression Technique Influenced by Primitivism shown in Fashion Design

Kim Jinyoung\* · Kan Hosup

MA., Dept. of Fashion Design, Hong-ik University\*  
Prof., Dept. of Textile Art · Fashion Design, Hong-ik University

### Abstract

Primitivism is a concept that expresses and organizes natural feelings of human beings which is hard to be identified by a rigid definition. It means "staying in the beginning or the initial state, not evolving or developing, and not affected by human beings from the intact natural state". Based on this meaning, the artistic style features inherent natural beauties, as well as plain and inornate design. These features have been reflected in a variety of art pieces. The aesthetic features shown in the primitivism art pieces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different aspects: naturalness, folksiness, sentimentality, and humorousness. These features, influencing modern fashion, have been reinvented by a number of fashion designers. They also adopted ideas from the fancy clothes and ornaments created in carefree life style of the regions retaining their primitive cultures, such as Africa, Oceania, and Pacific coasts, and applied those ideas to various silhouette, colors, patterns, and textiles. Particularly as for textile expressions, they tried printing techniques using the patterns motivated from primitive folk symbols or the nature, applied objet of primitive materials and elaborated ornaments that represent folk and primitive feelings, and employed the primitive techniques such as knotting, crude cutting, or natural draping, to reinvent them as textile expressions in modern fashion.

**Key Words** : Primitivism(원시주의), Aesthetic features of modern primitivism(원시주의 미술), Primitivism Fashion(원시주의 패션), Classification of textile expression methods (소재표현 방법 분류), Textile expression (소재표현기법)

<sup>+</sup> 이 논문은 2010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Kim Jinyoung, Tel.+82-10-6419-1400 Fax.+82-2-320-1225  
E-mail: high51318@hanmail.net

## 1.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오늘날 사회 각 분야를 막론하고 폭넓게 다루는 주제는 에코(eco), 지구환경과 같은 자연에 대한 관심이다. 패션에서도 이러한 환경에 대한 새로운 관심으로 자연 원래의 모습 즉 원시의 상태를 모티브로 새로운 미적 가치를 제시하고자 노력한다. 순수한 원시적 본능을 동경하는 자연으로의 회귀 심리는 복잡하고 인위적인 문명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꾸준히 작용해 온 심리기제이다.<sup>1)</sup> 즉 '원시'로부터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고, 나아가 근본의 순수한 모습을 회복하고자 노력했던 모습은 인간의 본성에 의한 욕구이며 무의식의 자발적 발로(發露)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서에 보면 태초에 아담과 이브가 신으로부터 받아 처음 입은 의상은 동물의 가죽이었다. 또한 원시시대 인간의 의상 재료는 자연으로부터 얻은 다양한 동물의 가죽 또는 식물의 잎이었다. 초기 인류가 옷을 입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논의되어 몇가지의 설로 나뉘지고 있으나 이러한 설과 관계없이 인류에 나타난 최초의의상은 자연의 것을 그대로 이용하여 입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원시의 상태에서 얻어진 대상을 의상으로 활용하려는 미적 욕구는 의상역사의 시작과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빠른 문명의 발달과 변화 속에서도 원시에 대한 동경과 회귀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은 예술 작품 안에서 다양한 조형미로 해석되어 왔다. 이러한 조형미는 원초적·생명적인 이미지, 토속적·생태학적인 이미지, 추상적·상징적인 이미지의 형태로 압축되어 나타나며 원시주의 미적 특성을 나타내주고 있다.<sup>2)</sup> 패션에서는 이러한 원시주의의 미적 특성을 반영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두면서 동시에 당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새롭고 독창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소재표현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원시주의를 반영한 패션에서의 조형적 특성을 크게 실루엣과 소재표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실루엣에 있어서는 아워글래스 실루엣, 스트레이트 실루엣 등의 정적인 실루엣을 사용하여 자연적인 이미지와 비구구조적인 조형미를 보여주고, 소재표현에 있어서는 다양한 촉각적인 재료와

기법을 이용하여 원시문화에서 보여 지는 강렬한 힘과 색채, 화려한 장식과 문양을 표현함으로써 다양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기에 원시주의의 영향을 받은 패션디자인에서는 실루엣의 변화 보다는 소재의 표현을 통해 그 의미를 드러내며 소재의 표현방법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이 전개되고 그 특징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사회의 각 분야에서 환경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함께 친환경적이고 자연적인 이미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재, 원시주의는 훼손되지 않은 순수성과 인간의 본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다양한 예술분야에서 새롭게 표현되고 있다. 또한 에코, 환경문제와 연결되어 꼭 다루어야 하는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기에 패션에서 이러한 원시주의의 특성이 반영된 디자인을 분석해 봄으로서 자연의 순수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현대 패션 디자인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많은 디자이너들이 실루엣 표현에 한계를 느끼고 독특한 소재개발에 주력, 디자인을 전개하는 현상을 고려해 볼 때, 원시주의를 반영한 패션에서 보여 지는 독특한 소재표현방법의 사례 분석은 실루엣과 디테일에만 집중되어 왔던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집중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소재 표현을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시주의를 반영한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보여 지는 소재표현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한 후 그것을 통해 미적 가치를 도출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개발될 원시주의를 반영한 패션디자인의 조형 요소 중 소재표현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에 제시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원시주의를 반영한 현대 패션디자인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원시주의(Primitivism)의 기본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원시주의가 미술에서 어떻게 전개 되었는지 살펴본 후 이 가운데 나타난 미적 특성을 예술적 관점에서 분석, 자연성, 토속성, 본능성, 유희성, 비정형성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하여 미

적 특성을 도출해내었다. 이를 토대로 원시주의의 미적 특성을 반영한 현대 패션디자인에서의 실증적 사례를 수집하여 이 가운데 소재표현에 중점을 둔 작품을 선정, 프린트 기법에 의한 표현, 오브제를 이용한 표현, 원시적 기법을 활용한 소재 표현 3가지 분류를 통해 사례를 나누고 그 속에 나타난 미적 특성을 문헌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우선, 기본 개념 확립을 위한 문헌 연구로서 관련된 논문자료, 단행본, 간행물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였고 실증적 사례분석을 위하여 패션잡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시각적 자료 수집을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원시주의의 개념

자연이나 자연적인 것을 인간적 가치의 기준에서 보는 입장으로 문명화된 시대의 세련미나 정교함보다는 오히려 원시시대의 순박함과 투박한 자연스러움을 선호하는 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원시(原始)’의 사전적 의미는 ‘처음, 시초, 본디대로 진화 또는 발전하지 않음, 자연 그대로 사람의 손이 가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원시적(原始的)’이란 말은 ‘원시상태이거나 혹은 그와 같이 뒤져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sup>3)</sup>

원시주의의(Primitivism) 개념을 살펴보기 앞서 원시성(the primitive)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여 본다면 ‘원시성’이란 개념은 일찍이 문명화를 이룩한 선진 서구의 역사적 경험과 산물에서 나온 용어이다. 인류학자 오트너(Sherry Ortner)는 동양과 여성, 자연을 ‘원시성’과 등가물로, 서양과 남성, 문화를 그 반대의 가치로 보았다.<sup>4)</sup> 즉 기준 이외의 가치를 더 낮게 평가하는 서구적 우월주의가 원시성(Primitive)의 기본개념이라 볼 수 있다.

서구예술의 역사적 범주 안에서 원시성의 개념은 과거의 숙련되지 못한, 혹은 미숙함에서 오는 세련되지 못함을 가리키는 상용화된 용어였다. 일반적인 분류방식으로 있어 대략 세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19~20세기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당시의 미술평론가

들이 중세 말기와 르네상스 초기의 화가들을 ‘Primitive’라고 지칭한 것과 두 번째로 인문주의 시대에 발생한 의미로서, 그 시기는 고전적인 르네상스를 예술의 최고 정점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13~15세기의 미술을 ‘Primitive’로 간주하여 르네상스의 서주 혹은 전례로 여긴 것을 들 수 있고, 세 번째로 20세기 초엽에 ‘Primitive’ 문화·인류학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즉 오늘날에도 여전히 석기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사용된 것, 이렇게 3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다.<sup>5)</sup> 이렇듯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통상적으로 예술에서의 원시성의 개념은 아직 미성숙한, 훈련받지 않은 초기 문화의 형태로 설명될 수 있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원시성의 개념이 바탕이 된 원시주의(Primitivism)는 서구의 근대주의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예술 전반에 걸쳐 원시성을 추구해온 전문인들과 예술인들의 창작행위에서 비롯된 개념으로<sup>6)</sup> 다른 사조와는 다르게 어떤 명백한 일관성이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도를 가지고 사용되지 않는다. 즉 프랑스의 상징주의자들이나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들이 이루어 놓은 만큼의 의식적이고 조리가 선 사조와는 다르게 인간 본연의 정리되어 있지 않은 기본적인 느낌에 대해 언급해 놓은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러므로 이 용어의 의미는 매우 광범위 한 것으로 규정되며 원시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에 부합되는 예술가들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정의가 가능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sup>7)</sup>

원시주의(Primitivism)는 20세기 초 서구 예술가들에 의해 서구의 그것이 아닌 다른 문화를 원시의 낮은 단계로 보고 원시문화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기대 속에서 서구의 관점으로 해석되었으나, 이후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 원래의 모습에 대한 동경, 자연의 순수성, 인간본연의 가치 등이 높은 가치로 평가되면서 문명에 물들지 않은 원시세계의 모습이 부각되었다. 이는 원시주의(Primitivism)의 개념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고 최초, 순수, 생명, 자연 등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 자신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본질적인 사고와 연결되어 왔다.<sup>8)</sup>

이상의 개념을 종합해 보면 ‘원시’의 의미는 이국적인 것 또는 타자라는 관점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나 점차 순수, 생명, 최초, 자연이라는 의미와 연결되면서 가치를 더하였고 나아가 점차 인간 자신의 내부의 가치로 그 시각이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 2. 미술에서의 원시주의

미술에서의 원시주의는 다양한 각도로 해석되어 질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과거의 원시시대에 행하여진 미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명이 발생하기 이전 과거로 거슬러 인류의 시발이라 할 수 있는 석기시대 미술을 대표로 들 수 있으며 최고(最古)시대의 미술을 의미한다. 이것은 원시주의를 현재와 거리가 있는 인간 역사 발생 이전의 초기시대를 일컫는다. 인류 최초의 회화라고 알려져 있는 기원전 15000년 전의 스페인에서 발굴된 알타미라 동굴벽화 <그림 1><sup>9)</sup>와 당시의 여인의 모습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프랑스 남부에서 발견된 조각 <그림 2><sup>10)</sup>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림 1> 동굴벽화에서 보여 지듯 초기 인간의 회화의 주제는 자연물이었으며 이러한 자연물의 상징적인 특성을 찾아내어 투박하고 기호화하여 표현하였다.

두 번째로 고도의 문명 이전의 부족의 미술양식을 들 수 있다. 이는 과거의 부족사회에서 행하여졌던 미술양식과 현존하고 있는 원시부족의 미술 양식을 이야기한다. 현대의 발달된 문명과 비교하여 상대적 가치에 의해 평가된 것으로 앞서 1차적으로 언급한 석기시대의 미술과는 구별된다.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태평양 제국 등 세계 각지의 원주민의 미술인 부족미술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으며 <그림 3><sup>11)</sup>과 같이 과거의 발전 단계 이전의 원시부족에서 보여 지는 미술양식과 오늘날 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원시의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원주민 부족의 미술 양식 <그림 4><sup>12)</sup>이 있다. <그림 4>의 경우 원시신앙인 샤머니즘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상징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부족의 미술은 깔끔하면서 완벽히 다듬어진 절제의 미가 아닌 투박하고 인간의 본능에 의한 솔직하면서도 소박한 토속성을 지니고 있다.

세 번째로 20세기 근대 화가들에 의해 정립되어진 원시주의 미술 양식을 이야기 할 수 있다. 15세기 지리상 발견 이후, 탐험과 과학적인 원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이전에 밝혀지지 않았던 수많은 민족들의 문화가 발견되었다. 그 결과 다양한 미술형태가 드러나게 되었고 20세기 초 현대예술이 출범하던 시기에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각사고를 자극하여 전통적인 개념을 탈피하는 것에 영향을 주며 현대 예술가들의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sup>13)</sup>

이러한 원시미술을 통해 20세기 서구의 화가들은 세련되지 못한 곳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여 원시주의 미술을 펼쳐보였다. 이는 정형적인 기존의 미술로부터 탈피 비정형적인 미를 추구하려는 예술가의 의지에 의해 표현되어진 예술이었다.<sup>14)</sup> 서양 미술사상 근대 이후에 전개되는 미술 속에 원시미술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19세기말에서 20세기에 걸쳐 일기 시작한다. 지나치게 양성적인 문명과 기교의 미술에 대한 회의와 함께 미개원주민 미술품 속에 내재된 놀라운 표현적 조형성을 발견함으로써 많은 미술가는 그곳에서 조형적 가치를 찾고자 노력하였다.<sup>15)</sup> 이러한 경향은 일반적으로 숙련되지 못한, 미숙한 상태에서 보이는 미적 가치로도 표현되어지는데 원시미술은 시대적 특성상 본능의 움직임에 의한 순수성이라는 원시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화가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왔다. 또한 구석기 시대의 원시 화가들이 보여주는 소박하면서도 생명감 넘치는 조형세계는 1,2차 대전으로 인해 신앙과 과학에 대한 믿음마저 상실한 현대인의 정신적 상황에서 원시적 물음을 되찾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순수한 본능에 의한 감수성을 회복하는 자극체가 되기도 하였다. 20세기 초 몇몇 예술가들은 문명의 불모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자연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프랑스에서는 장 자크 루소가 이런 길을 따라 사색하기 시작하였고 고갱도 역시 문명을 등지고 남태평양 군도로 떠났다. 이들은 문명으로부터의 도피, 즉 어린애 혹은 의식 이전이나 잠재의식의 상태로의 도피 이를테면, 원시상태로의 복귀를 통해 향수를 느꼈고 본능적이며 근원에 가까운 원시적인 자연의 정령 혹은 자연력에 대한 환상이나 마력에 집중하였다.<sup>16)</sup>

이러한 서구미술의 '원시주의'는 이러한 경향의 작가들이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등지에서 제작된 조각과 가면 등에 탐닉하였는데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이는 소극적으로 박물관 등을 방문하였고 보다 적극적인 이들은 직접 '원시의 장소를 찾아 떠났다. 낯설고 동떨어졌지만 유럽의 전통과 첨예하게 대립된 초시간적인 원시의 미술은 점차 현대 미술가들에게 창조성의 풍부한 광맥<sup>17)</sup>을 제공해 주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원시주의는 인상주의, 야수파, 독일 표현주의, 입체파를 거쳐 초현실주의와 추상표현주의에 이르기까지 미술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양식을 창안하기 위한 정신적 기반이자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sup>18)</sup> 19세기 말 서구의 화가들에게 있어 원시의 공간은 서구문명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곳, 동방이나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폴리네시아를 의미하였다. 문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연과 밀착하여 사는 삶의 방식만이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고 믿었던 화가들은 낭만적요소를 반영한 원시주의를 표방하였다.<sup>19)</sup> 이들은 대도시를 떠나 원시의 장소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작업하였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화가 고갱(Paul Gauguin)은 자연속에서 순박하게 살아가는 토속적인 모습을 화풍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5><sup>20)</sup>에서 보여 지는 것과 같이 그는 타히티라는 원시의 모습을 원시적 모법에 따라 대담하고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표현주의 대표적인 작가인 키르히너는 원시부족의 미술품 수집으로 얻어진 다양한 모티브를 통해 <그림 6><sup>21)</sup>에서와 같이 독특한 형태의 조각 작품을 만들어 내었다. 이는 아프리카의 부족 미술에서 보여 지는 조형

미에 영향을 받아 제작한 것으로 이러한 낯선 표현은 새로운 유희성과 즉흥성에서 오는 즐거움을 만들어 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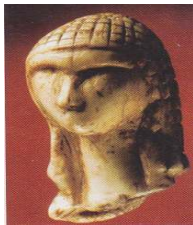
이후 많은 예술가 들은 다양한 부족미술에 영향을 받아 새로운 미술품을 만들어 내었는데 <표 1><sup>22)</sup>을 살펴보면 다양한 지역의 조각, 회화, 공예 문화를 통하여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순수성과 소박한 토속성, 추상적 표현에 의한 추상성과 즉흥성을 보여주면서 비정형적인 특성을 잘 받아들여 현대미술에 응용하여 발전시켰다.

이렇듯 원시주의 미술은 크게 선사시대에서 행하여 졌던 미술양식과 원시문화 속에서 행하여 졌던 원시미술 양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원시미술이라는 의미 자체가 원시인이 행하였던 미술을 지칭하는 것으로 현재를 문명의 것으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원시인의 미술품을 일컫는다. 반면 또 다른 분류로는 이러한 미술의 정신을 이어받아 현대미술에서 새롭게 재해석되어진 원시주의 양식의 미술, 즉 원시인의 정신이나 감정을 바탕으로 현대의 입장에서 원시의 미술을 재해석한 원시주의 양식의 미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앞서 개념에서 언급하였듯이 원시주의는 인간 본연의 감성에서부터 출발하여 접근되어진 개념이기에 다양한 작가들에 의해 새롭게 해석되어 질수 있는 유연한 개념이다. 그러므로 몇 가지로 규정지어 원시미술을 이해하기보다 직관과 천재성에 따라 자유롭게 창조하고, 나아가 근원적인 존재로서 인간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개념을 가진 미술양식으로서 이해해야 한다.



<그림 1> 들소기원전 15000년 길이 195cm 스페인 알타미라 -원시미술의 세계, p.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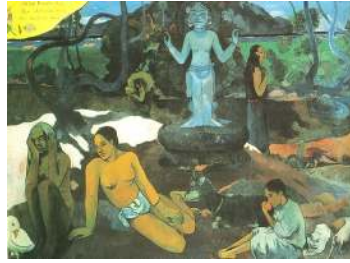
<그림 2> 브라셀 포이 출토 여인두상 기원전 22000년경, 상아 높이 3cm -서양미술사, P.15.



<그림 3> 바울러 아이보리코스트 목재, 25cm 개인소장, 프랑스 -원시미술과 현대미술, p.24.



<그림 4> 마오리부족 전통조각 목재, 뉴질랜드  
-<http://laurastitts.worth.blogspot.com/>



<그림 5>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어디로 갈 것인가, 폴 고크  
-고갱-고귀한 야만인 p.128.



<그림 6> 춤추는 여자  
에른스트 루드비히 키르히너(1911)  
-어떻게 이해할까?표현주의, p.72.

<표 1> 부족 미술에 영향을 받은 현대미술

-원시미술과 현대미술, pp.28-73.

부족 미술	현대 미술	조형적 특징
<p>&lt;그림 7&gt; 무도가면, 루쿠노르</p>	<p>&lt;그림 8&gt; 사람얼굴 에서의 변화, 알렉세이 조렌스키</p>	<p>무도가면은 태풍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수확을 보장해주는 샤머니즘적인 특성을 가진 미술품으로 토속적인 미를 가지고 있으며 현대의 조렌스키에 의해 새롭게 해석되어 표현 되었다.</p> <p>토속적인 아름다움, 상징성, 비정형성</p>
<p>&lt;그림 9&gt; 출산의 우상, 가나</p>	<p>&lt;그림 10&gt; 세네시오, 폴 고크</p>	<p>가나지역의 종교적 대상물이었던 출산의 우상을 폴 고크에 의해 새롭게 해석되었다. 앞 시대의 표현형식이 가지고 있는 순수성과 쾌활성 등이 잘 반영되어 있다.</p> <p>쾌활한 조형미, 즉흥성</p>
<p>&lt;그림 11&gt; 콜롬비아 이전의 미술 인간형상, 페루</p>	<p>&lt;그림 12&gt; Enrico Baj</p>	<p>콜롬비아 이전의 페루에서 발견된 미술을 Enrico Baj이 그곳에서 보여지는 유희미에 집중하여 새롭게 표현하였다. 어린아이의 장난과 같은 순수함이 잘 표현되어 있다.</p> <p>순수한 유희성, 토속성, 본능성</p>
<p>&lt;그림 13&gt;비의신 마야문명,멕시코</p>	<p>&lt;그림 14&gt;누워있는 여인 헨리 무어</p>	<p>헨리무어는 마야문명의 비의 신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순수성과 생동감에 영향을 받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유희적 조형성에 초점을 두어 재해석 하였다.</p> <p>생동감, 상징성, 유희적 조형성</p>

#### 4. 원시주의의 미적 특성

##### 1) 자연성

원시주의 양식에서 생명력을 가진 자연의 표현은 기본적인 미적 특성이다. 이는 자연을 숭배하였던 애니미즘(animism), 토테미즘(totemism) 등의 사상의 정신적 배경을 근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sup>23)</sup> 원시문화에서 자연은 모든 문화의 시작점으로서 이를 경외하는 사상, 이를 정복하려는 인간의 욕구 등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초자연적 힘을 빌리기 위한 주술적 행위에서의 자연에 대한 동경은 자연스럽게 원시주의 양식에 반영되었다. 이는 20세기 초 화가들에 의해 새롭게 표출되었다. 예술가들은 고도의 발달된 문명 속에서 유토피아적인 전원을 꿈꾸며 이상적인 자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 원시의 장소를 찾아다니며 그 곳에서 미적 아름다움을 발견하였다.<sup>24)</sup> 그것을 토대로 발달한 자연을 향한 유토피아적 낭만주의가 원시주의 미술양식의 미적 특성이 되었다.

##### 2) 토속성

부족미술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토속성은 현대미술 작가들에 의해 그 가치가 반영되어 다양한 작품에 표현되었다. 과장되거나 왜곡되어진 형태, 혹은 정돈되지 않은 선의 형태를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부족미술의 조형성은 현대 미술작품에 응용되어 짐으로서 원시 부족 미술이 가지고 있는 토속적인 특성을 보여주었다. 보들레르는 “예술가들이 현재를 대면할 때 과거를 사용하곤 한다.” 라고 하였다.<sup>25)</sup> 이는 많은 예술가들이 과거를 재구성하고 검토하여 새로운 예술작품을 표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많은 예술가들은 소외되었던 제 3세계의 독특한 민속적이고 토속적 이미지에 매료 되어 이로부터 풍부한 영감의 원천을 제공받았다.<sup>26)</sup> 이는 후에 다양한 미술 작품에 반영되어 토속적인 특성을 나타내었다.

##### 3) 본능성

초기의 인류들은 자신의 생명유지와 종족보존이 중요한 지상과제였으므로 그와 같은 내적욕구를 작품화 시켰다. 예술이 예술적 표현으로서의 목적을

갖기 보다는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식량의 확보, 전쟁의 승리, 종족의 보존, 사회질서의 유지 등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는 근본적인 생의 본능으로부터 표현되었다. 다시 말해 원시예술의 가장 기저를 이루고 있는 인간의 본능이란 생명의 충동이며, 원시예술은 생명의 직관적인 현상이다. Henry Moore는 “나에게 있어선 작품은 우선 그 자신의 생명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되고, 작품은 그것에 나타낼 수 있는 대상에서 독립하여 그 자신의 강렬한 생명, 즉 그 안에서 숨겨져 있는 에너지를 지닐 수 있어야 한다.”<sup>27)</sup>고 하였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생명력이란 반복, 모방의 의미가 아닌 작품에 생명력과 독창성이 있는 작가만의 인간적 본능을 담은 작품이라야 한다는 이야기이다.<sup>28)</sup>

##### 4) 유희성

유희성이란 유아기에서 보여 지는 순진무구한 시기의 특성과 같은 순수하면서 천진난만한 성격을 의미한다. 즉 내면의 상태를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솔직함과 동시에 무의식의 상태에서 경험 할 수 있는 꾸밈없는 모습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sup>29)</sup> 원시미술은 본래 유용한 사물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예술이므로 심리적인 필요를 개인에 의해 선택되어 진다. 그 결과 개인의 순수한 감각적인 쾌락이 반영되어 만드는 사람의 느낌이 중요해지고 사실적인 표현보다는 추상적인 표현이 많아지는 것이다.<sup>30)</sup> 이러한 무의식과 개인의 감정에 의해 표현되는 원시 미술의 특성을 그대로 받아 현대의 원시주의 미술 작품에서 역시 즐겁게 놀며 장난하는 듯한 성질인 ‘유희성’의 요소가 보여 졌다.

##### 5) 비정형성

구체적 형태나 정확한 묘사에 의해 표현 되는 것이 아닌 작가의 순수한 심리적 상태에 의해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이러한 특성을 비정형성이라고 한다. 원시주의 미술 작품의 경우 대부분 기존의 작품 체계에서 파괴, 변형되고자 하는 욕구에서 출발한 작품이 많이 있다. 기존의 특징을 벗어난 새로운 형태

로 왜곡하거나 단순화 시켜 표현하기도 하고 기존의 미술 체계를 벗어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기도 한다.<sup>31)</sup> 이러한 특징은 특히 20세기 원시미술에 매료되어 새로운 작품을 하고자 하는 작가들에 의해 많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형적인 미술에서 탈피 자유롭고 새로운 형태의 미적 표현을 통해 작품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비정형적인 형태로 원시주의 미술의 특성이 되었다.

### III. 현대패션에서 나타난 원시주의 의상의 소재표현연구

#### 1. 프린트 기법에 의한 표현

##### 1) 원시문화에서 모티브를 얻은 문양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태평양 연안의 원시 문화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양을 활용하거나 원시주의 미술에서 나타나는 형태를 이용하여, 텍스타일에 프린팅 하는 기법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원시문화에서 모티브를 얻은 문양에 의한 소재 표현은 원시문화가 간직한 토속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문명이 달지 않은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자유분방한 단순함과 구속에서 벗어난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창조되는 강렬하고 화려한 예술품 혹은 실용품 등에서 보여지는 문양은 패턴의 모티브로 활용하여 사용한다. <그림 15><sup>32)</sup>의 경우 마사이족 패치워크에 나타나 표현을 모티브로 디자인하였다. <그림 16><그림 17><sup>33)</sup>와 같이 원시문화의 전통 텍스타일과 문양을 가져와 재해석하여 의상에 프린팅 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원시주의 미술 양식에서 보여지는 단순하면서도 천진난만한 원시적인 드로잉을 <그림 18>와 같이 직접 의상에 프린팅하여 재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프린팅의 문양은 기하학적인 문양과 단순화된 형태, 상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원시주의 문화에서 나타나는 문양의 특징인 화려한 색채대비는 이러한 프린트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강렬한 원색의 사용을 통해 생동감을 보여주며 이는 원시주의 양식에서 보여지는 강렬한 생동감과 연결된다. 소재는 원시주의 의상에서 흔히 보여 지

는 실루엣인 아워글래스 실루엣, 스트레이트 실루엣과 같은 인체가 잘 드러날 수 있는 드레이프성이 우수한 소재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실크실크 혹은 쉬폰과 같은 부드러운 촉감의 소재는 이러한 실루엣을 표현해주기 적합하며 원시적인 문양의 화려한 표현에 있어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광택의 우수성 때문에 적절히 표현될 수 있다.




##### 2) 자연에서 모티브를 얻은 문양

원시미술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예술 모티브의 시초는 자연에서 얻어진 것이다. 현대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도 원시주의를 반영한 의상의 경우 자연에서 얻어지는 패턴을 응용하여 문양을 디자인하고 그것을 프린트 하여 표현하는 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동물의 표피 패턴을 활용한 소재표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그림19><그림20>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실제 동물 표피의 무늬를 의상에 응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생동감과 함께 자연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호피무늬 혹은 얼룩말과 같은 무늬 등은 일반적인 의상에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기법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자연에서 얻어지는 문양의 경우 자연그대로의 형태와 함께 색상에 있어서도 리얼리티를 강조하기 위해 그대로의 색상을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문양의 형태는 같지만 색상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색을 사용함으로써 <그림21>에서와 같이 새로운 미를 보여 주기도 한다. 또한 <그림 22>에서와 같이 자연의 문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디자이너만의 해석을 통해 더욱 사실적인 자연무늬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러한 자연에서 모티브를 얻은 문양의 경우 자연의 특징인 유기적이고 반복적인 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컬러의 경우 생태학적인 색채를 통해 자연의 친숙함을 표현함과 동시에 자연미를 보여준다.<sup>34)</sup> 또한 다양한 컬러 매치를 통해 기존의 컬러와는 다른 새로운 컬러를 제시하기도 한다. 소재는 프린트가 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원단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표현한다.



<표 2> 프린트 기법에 의한 표현

<p>원시문화 에서 모티브를 얻은 문양</p>	 <p>&lt;그림 15&gt;2008 S/S Just Cavalli Milan -www.samsungdesig n.net</p>	 <p>&lt;그림 16&gt;2010 S/S Dries Van Noton Paris -www.samsungdesig n.net</p>	 <p>&lt;그림 17&gt;2010 s/s Diane von Furstenberg NewYork -style.com</p>	 <p>&lt;그림 18&gt;2010 S/S Issey Miyake Paris -www.samsungdesig n.net</p>
<p>자연에서 모티브를 얻은 문양</p>	 <p>&lt;그림 19&gt;2009 s/s Junya Watanabe Paris -style.com</p>	 <p>&lt;그림 20&gt;2010 F/W Blumarine Milans -style.com</p>	 <p>&lt;그림 21&gt;2010 s/s Diane von Furstenberg NewYork -style.com</p>	 <p>&lt;그림 22&gt;2010 S/S AlexanderMCQueen Paris -www.samsungdesig n.net</p>

## 2. 오브제를 이용한 표현

### 1) 오브제를 이용한 입체적인 문양 표현

프린트 기법을 이용하여 표현 될 수 있는 무늬 혹은 장식에 대해 오브제의 입체적인 효과를 응용하여

새로운 질감을 나타내는 표현방법이다. 오브제를 통해 평면이 아닌 입체적인 공간감을 갖게 됨으로서 살아있는 자연의 생명력을 잘 표현해 준다. 특히 오브제를 활용한 표현은 단순히 표면의 문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입체적인 형태로 더욱 촉각적인 소재

표현이 가능하다. 또한 평면에서 오는 단순함이 아닌 입체에서 오는 다양한 볼거리의 요소들을 디자인 속에서 제공하여 줌으로서 소재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며 나아가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 질감의 느낌을 표현하기 때문에 내재된 본능적 욕구에 의한 미의 표출이 강하게 부각되어 나타난다. 동시에 촉각에 의존하는 어린아이의 순수성과 같은 유희성,

본능성도 함께 보여 진다.

오브제를 이용한 입체적 소재문양표현의 방법에는 <그림 23>과 같이 자연 질감을 그대로 재현하여 나타냄으로 자연 질감 표면을 소재문양표현으로 활용하여 표현한다. 또는 <그림 24><그림 25>와 같이 원시 문화에서 보여 지는 문양 혹은 질감을 입체적 소재를 활용하여 이어 붙여 나가기를 함으로서 프린팅

<표 3> 오브제를 이용한 표현

<p>오브제 이용한 입체적 문양 표현</p>				
	<p>&lt;그림 23&gt;2010 S/S Alexander McQueen Paris - <a href="http://www.samsungdesign.net">www.samsungdesign.net</a></p>	<p>&lt;그림 24&gt;2009 F/W Etro Milan - <a href="http://www.style.com">www.style.com</a></p>	<p>&lt;그림 25&gt;2010 s/s Diane von Furstenberg New York - <a href="http://www.style.com">www.style.com</a></p>	<p>&lt;그림 26&gt;2009 S/S Louis Vuitton Paris - <a href="http://www.samsungdesign.net">www.samsungdesign.net</a></p>
<p>오브제 이용한 악세 사리 소재 표현</p>				
	<p>&lt;그림 27&gt;2010 F/w Lavin Paris - <a href="http://www.style.com">www.style.com</a></p>	<p>&lt;그림 28&gt;2010 F/W Wunderkind Paris - <a href="http://www.style.com">www.style.com</a></p>	<p>&lt;그림 29&gt;2009 April Vlisco beat collection Designed by Eva Gabarra Paris - <a href="http://www.afpbb.co.kr">http://www.afpbb.co.kr</a></p>	<p>&lt;그림 30&gt;2008 S/S Just Cavalli Milan - <a href="http://www.samsungdesign.net">www.samsungdesign.net</a></p>

방식으로 단순하게 표현될 수 있는 문양을 더욱 유희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26>의 경우 자연재료인 퍼(Fur)를 이용하여 전체 소재 표현에 사용함으로써 부드러운 촉각의 질감을 연상할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표현의 전체적 형태로는 입체적 소재를 활용한 촉각적 형태를 가지며 토속적인 색채, 생태학적 색채 등 다양한 색채를 혼재하여 사용함으로써 화려하게 표현하였고 비즈, 입체적 장식, 깃털 등의 입체적인 소재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원시주의 양식의 패션에서 느낄 수 있는 유희성과 본능성을 더욱 부각시켜 나타내었다.

#### 2) 오브제를 이용한 악세사리 소재 표현

원시주의를 반영한 패션에 있어서 오브제를 이용한 악세사리 소재표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악세사리를 통해 전체 의상에 있어서 강약조절은 원시주의 의상이 가지고 있는 강렬한 생명력과 동시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 특히 원시주의의 다양한 개념 중 원시부족 미술을 모티브로 하여 디자인된 의상의 경우 이러한 악세사리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모티브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큰 볼륨의 장식구는 원시문화에서 상대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본능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림 27>의 경우 강렬한 원시부족에서 느낄 수 있는 거칠고 강한 느낌의 목 악세사리를 사용함으로써 토속적인 미와 함께 본능성을 보여준다. <그림 28><그림 29><sup>35)</sup>의 경우 원시주의 미술에서 보여 지는 유희적 형상의 얼굴 모습을 그대로 조각하여 목장식과 머리장식으로 사용함으로써 유희적인 미를 보여준다. <그림 30>과 같이 원시문화의 의상에서 보여 지는 요소를 현대패션에 응용하는 방법은 현대패션과 어우러져 유희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오브제를 이용한 악세사리 소재 표현은 형태에 있어서는 명쾌한 볼륨의 장식적인 형태로 큰 시선을 끌며 색상은 강렬한 원색 혹은 토속적인 색상을 사용하여 생동감을 부각시킨다. 소재의 경우 깃털과 같은 가벼운 소재에서부터 체인, 나무와 같은 입체적 장식의 특성을 가진 소재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어 강렬한 표현에 적절히 사용된다.

### 3. 원시적 기법을 활용한 소재 표현

#### 1) 끈의 연결을 통한 표현

섬유를 뚫거나 묶는 기법 등의 원시적 특성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변화시켜 전개하는 방법으로서, 비슷한 형태의 끈을 연결하여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림 31><그림 32>와 같이 옷의 기본구조를 무시한 비정형적 원시적 형태의 노출된 의상과 원주민들의 토속적 의상을 통해 보여 지는 방법을 이용하여 디자인 하거나 <그림 33>에서와 원시문화의 공예작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법을 이용하여 디자인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나타낸 패션의 경우 끈의 무질서한 반복 묶음과 얽힘을 통해 인체의 형태를 에로틱하고 야만적이게 표현하며 강렬한 원색과 토속적 색상의 사용으로 원시주의 의상의 생동감을 더하여 준다. 끈의 소재의 경우 기존의 끈을 가지고 엮어서 만들 수 있지만 천을 뭉쳐서 끈처럼 길게 만든 후에 거칠게 엮을 수 있다. 또한 <그림 34>에서와 같이 가죽을 이용하여 땀기 방법으로 끈을 만들어 소재로 사용하여 원시부족의 전사와 같은 이미지를 낼 수 있다.

끈의 자유로운 연결을 통한 소재표현 방법은 기존의 의상 표현 방법과는 다른 형태의 것으로 새로움에서 오는 유희성을 보여주며 원시 공예적인 느낌에서 오는 감각적인 질감이 더욱 인간의 본능적 감성을 부각시켜 원시주의 의상에 있어서 적절히 미적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 2) 자유로운 커팅과 드레이핑을 이용한 소재표현

원시주의의 특성인 투박함과 거친 미는 원시주의 패션의 소재표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그림 35>와 같이 완벽한 커팅과 재단의 방식을 거친 디자인이 아닌 자유롭게 재단하고 봉제하여 자연스럽게 소재를 표현한다. 이는 부족미술의 보여 지는 투박함에서 오는 비정형적인 미를 반영한 것으로 원시미술에 영향을 받은 현대 미술가들에 의해 보여 지는 작품과 같이 설명되어 질수 있다. 실제로 정교하고 자세하게 그리는 기법을 거부하고 원시의 기법을 이용하

여 그리고 조각함으로써 비정형적 표현 방식에서 오는 유희미와 순수미를 강조하였다. 이는 패션에서도 연결되어 완벽한 재단을 통해 의상을 만드는 것이 아닌 대략적인 커팅과 적절한 드레이핑으로 형태를 잡아 봉제를 하여 표현함으로써 서툰 것에서 오는 간결한 미와 함께 유희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그림

36>의 경우에도 완벽한 패턴에 의한 의상 디자인이 아닌 적절한 천 조각의 연결을 통해 자연스러운 드레이프된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7><그림 38>에서 보여지는 드레이핑은 정형화된 패턴에서 벗어나 묶어서 엮는 방식의 드레이핑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자연성을 강조하였다.

<표 4> 원시적 기법을 활용한 소재 표현

끈의 연결을 통한 소재 표현				
	<p>&lt;그림31&gt;2010s/s Rodarte, New YORK -www.samsungdesign.net</p>	<p>&lt;그림32&gt;2010 S/S Diane von Furstenberg New York - style.com</p>	<p>&lt;그림33&gt;2010 S/S Issey Miyake Paris -www.samsungdesign.net</p>	<p>&lt;그림34&gt;2010F/W Ann Demeulemeester Paris -www.samsungdesign.net</p>
자유로운 커팅과 드레이핑 이용한 소재 표현				
	<p>&lt;그림35&gt;2008 F/W Jean Paul Gaultier Paris -www.samsungdesign.net</p>	<p>&lt;그림36&gt;2010 F/W Wunderkind Paris -www.samsungdesign.net</p>	<p>&lt;그림37&gt;2010s/s Rodarte, New YORK -www.samsungdesign.net</p>	<p>&lt;그림38&gt;2009 s/s Junya Watanabe Paris -www.style.com</p>

이러한 자유로운 커팅과 드레이핑을 이용한 소재 표현은 그 형태에 있어 인간 본능적 욕구 표현에 의한 자유로운 표현을 통한 무질서한 형태를 보여주며 완벽한 형태에서 오는 아름다움이 아닌 왜곡된 형태에서 오는 유희성을 적절히 보여준다. 색상은 적갈색과 황토색과 같은 자연스러운 컬러가 주로 사용되

며 반대로 강렬한 원색의 대비가 사용되기도 한다. 소재에 있어서는 가죽과 같은 천연 소재 혹은 마,면 같은 자연스러운 형태를 나타낼 수 있는 천연소재가 주를 이룬다. 이는 이러한 소재를 통해서 보여 지는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적인 느낌을 더욱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5> 현대패션에서 나타난 원시주의 의상의 소재표현연구

분류		조형적 특성	표현 방법	미적 특성
프린트 기법에 의한 표현	원시문화에서 모티브를 얻은 문양	형태	기하학적 문양, 단순화된 형태 상징적 표현	자연성 토속성
		색상	강렬한 색채의 대비 무절제한 원색	
		소재	실켓 실크, 쉬폰 실크 드레이프성이 우수한 소재 사용	
	자연에서 모티브를 얻은 문양	형태	유기적인 형태, 반복적 형태	
		색상	생태학적 색 다양한 컬러의 혼합, 순색의 사용	
		소재	프린트가 표현될 수 있는 소재 다양한 소재의 절충적 사용	
오브제를 이용한 입체적 표현	오브제 이용한 입체적 문양 표현	형태	입체적 소재를 활용한 촉각적 형태	토속성 유희성 본능성 비정형성
		색상	Natural Color 토속적인 색채, 생태학적 색채 다양한 색채의 혼재	
		소재	비즈, 입체적 장식, 깃털 등의 입체적인 소재	
	오브제를 이용한 악세사리 소재 표현	형태	명쾌한 볼륨의 장식적인 형태	
		색상	강렬한 원색, 토속적 색상	
		소재	깃털, 입체적 장식재료	
원시적 기법을 활용한 소재표현	끈의 연결을 통한 소재표현	형태	끈의 연결을 통한 에로틱한 형태 야만적 형태, 무질서한 형태	토속성 유희성 본능성 자연성 비정형성
		색상	강렬한 원색, 고유색 부정 토속적 색상	
		소재	끈(니트, 비즈끈)	
	자유로운 커팅과 드레이핑을 이용한 소재표현	형태	인간 욕구 표현에 의한 자유로운 표현 무질서한 형태, 왜곡된 형태	
		색상	적갈색, 황색 화려한 색채	
		소재	천연소재(가죽) 자연적 형태를 지닌 소재	

이러한 자유로운 커팅과 드레이핑을 이용한 소재 표현은 원시주의 의상에서 원시주의가 가지고 있는 미적 특성 중 비정형성과 토속적인 아름다움인 토속성과 유희적인 즐거움인 유희성 인간의 본능의 내재된 욕망의 표출에 의한 본능성, 자연스러운 형태를 통한 자연성 등을 보여주고 있다.

#### IV. 결론

원시주의 양식은 하나의 정의로 규정짓기 어려운 인간 본연의 느낌을 글로 표현하여 정리한 개념으로서 ‘처음, 시초, 본디대로 진화 또는 발전하지 않음, 자연 그대로 사람의 손이 가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현대 예술가들에 의해 매력적인 분야로 인식되어 다양한 형태의 원시주의 예술을 만들어 내었다. 원시주의 양식은 미술에서도 나타나는데 원시인에 의해 만들어진 그 자체의 미술인 원시시대에 행하여졌던 원시미술과 현존하는 원시문화를 간직한 지역의 부족 전통미술 그리고 이러한 원시문화를 모티브로 하여 현대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원시주의 양식을 가진 미술 이렇게 3가지의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원시주의 미술에서 나타나는 미적특성을 자연성, 토속성, 본능성, 유희성, 비정형성 이렇게 5가지로 도출해 내었다. 자연을 숭배하였던 애니미즘(animism) 토테미즘(totemism) 등의 정신적 배경을 근간으로 자연을 모티브로 하여 원시상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려 한 자연성과 거칠고 투박한 표현에서 오는 소박한 부족 미술에 영향을 받은 토속성, 원시예술의 가장 기초를 이루고 있는 인간의 본능을 통한 생명력 있는 표현인 본능성, 내면의 상태를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표현하며 순수하게 창조하는 유희성, 기존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 작가 나름의 방식으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창조하는 비정형성으로 분류 하였다.

이러한 미적 특성은 현대 패션에도 영향을 주어 많은 디자이너에 의해 새롭게 창조되었다. 그들은 원시에 감추어진 생명력을 감지하고, 그곳에서 창조

적인 영감과 모티브를 제공받아 패션 안에서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태평양 연안 문화의 자유분방함과 단순함, 구속에서 벗어난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창조된 강렬하고 활동적인 의상들과 장식품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와 다양한 의상의 실루엣, 색상, 무늬, 소재표현에 응용하였다.

원시주의를 반영한 현대 패션디자인은 근원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욕구의 사상적 배경으로 기교에 얽매었던 패션 창작성이 자유분방하게 표출되어 소박하고 생명력 있는 복식미를 보여준다. 실루엣은 단순하지만 화려한 장식과 강렬한 색채, 기하학적 문양을 그 조형적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악세사리를 통해 원시적 심성을 나타내주고 천연소재의 사용과 수공예적인 기법은 현대 패션에 재창조되어 소재표현에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특히 소재표현에 있어서 프린팅 기법, 오브제를 활용한 표현, 원시적 제작 방식을 응용한 표현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되어 표현됨으로서 원시주의 패션의 다양한 조형미를 보여준다.

첫째, 프린팅 기법을 활용하는 소재표현이 있다. 이는 프린팅이라는 단순한 기법을 이용하여 원시문화의 문양 표현하거나 자연의 생명력을 드러내기 위해 자연의 무늬에서 모티브를 얻어 반복적인 패턴의 형식으로 텍스타일에 프린팅하여 나타내는 방법이다.

둘째, 오브제를 사용하여 소재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는 프린팅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양을 더욱 촉각적인 질감 표현을 내기 위해 다양한 오브제를 텍스타일 표면에 붙여 장식함으로 소재의 질감을 나타낸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화려한 장신구 오브제를 사용하여 토속적인 의미를 더해주기도 하는데, 오브제를 이용한 악세사리 소재 표현은 강렬하고 토속적인 문화, 문명과 동떨어진 원시 미개사회의 노골적인 특성과 요소의 반영으로 현대패션에 구현된 형태이다.

셋째, 원시적 기법을 활용하여 소재표현을 하는 방법이다. 소재 제작방식에 있어서 끈의 연결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옷의 기본구조를 무시한 원시적 형태의 노출된 의상을 디자인하거나 거친 커팅과 자유로운 드레이핑을 통해 거칠고 투박한 가운데서 오는

비정형성과 본능성을 표현한 형태이다.

오늘날 많은 디자이너들이 실루엣 디자인에 한계를 느끼고 소재표현에 더욱 관심을 갖는 현실을 비추어볼 때 앞으로의 패션디자인에서의 소재의 영역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 질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시주의 패션에서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소재표현연구는 다양한 잠재력을 지닌 영역으로서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상의 연구와 같이 현대 패션에 있어서 원시주의(Primitivism)는 앞으로 환경의 문제, 소수의 문화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꾸준히 관심을 갖고 다루어야 할 장르이다.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자연으로 부터 근원을 삼고 인간의 본능에 의한 욕구를 표현하고자 하는 원시주의 패션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 할 것이다. 과거의 유물로만 남아있거나 원시적이며 낮은 단계의 예술 장르가 아닌 21세기 다양한 발전과 변화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모티브를 제공해 주는 장르로서 무한한 디자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영역이다

### 참고문헌

- 1) 임강희(2002), "현대 일러스트레이션에 잠재된 원시성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시각 디자인과 석사학위논문, p.1.
- 2) 강다혜(2007), "현대 모피 패션 디자인의 이미지 특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학위논문, p.41.
- 3) 민중서림 편집국(2001), *옛센스 국어사전*, 민중서림, p.1915.
- 4) 박연실(2001), "20세기 서구 미술에서 '원시성'의 문제", *미학·예술학연구*, 13, p.244.
- 5) 김진엽(1996), *무의식과 프리미티비즘*, 미술세계, p.70.
- 6) 임강희, op. cit., p.4.
- 7) M. Bel(1985), *Primitivism*, 김성곤(역), 서울대학교 출판부, p.3.
- 8) 임강희, op. cit., p.9.
- 9) 임두빈(2001), *원시미술의 세계*, 가람기획, p.57.
- 10) 이은기, 김미정(2006), *서양미술사*, 미진사, P.15.
- 11) 웬틴크 찰스(1995), *원시미술과 현대미술*, 김준형(역), 문하, P.24.
- 12) "마오리족 문화", 자료검색일 2010. 02. 14, 자료출처 <http://laurastittsworth.blogspot.com/>
- 13) 문혜신(1992), "現代纖維美術에 나타난 Primitivism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
- 14) D. Flam, Jack, Miriam. Deutch, Carl. Einstein(2003), *Primitivism and twentieth-century art ; a documentary history*, Berkeley, Calif.: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21.
- 15) Wentinck, Charles(1978), *Modern and primitive art*, Oxford: Phaidon, p.42.
- 16) 웬틴크 찰스(1995), *원시미술과 현대미술*, 김준형(역), 문하, p.100.
- 17) Nobert Lynton(1994), *20세기의 미술*, 윤난지(역), 예경, p.16.
- 18) 임강희, op. cit., p.26.
- 19) Rohdes Colin(1994), *Primitivism and Mordern Art*, New York: Thames and Hudson Inc., p.12.
- 20) 프랑수아즈 카생(1996), *고갱-고귀한 야만인*, 이희재(역), 시공사, p.128.
- 21) 뒤히팅 하요(2007), *어떻게 이해할까? 표현주의*, 최정윤(역), 미술문화, p.72.
- 22) 찰스웬틴크, op. cit., pp.28-73.
- 23) 하지수(1996), "복식에 나타난 원시주의 양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6.
- 24) 임강희, op. cit., p.28.
- 25) Martin Richard, Koda Harold(1989), *The Historical Mode*, New York: Rizzoli, p.7.
- 26) 박태웅(2006), "현대패션에 나타난 누디즘 스타일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패션디자인학과 박사학위논문, p.89.
- 27) H. Read(1965), *Icon and Idea ; the function*

*of art in the development of human consciousness*, New York: Schcken Books, p.26.

- 28) 하지수, op. cit., p.21.
- 29) Ibid., p43.
- 30) 문혜신, op. cit., p.9.
- 31) Goldwater, Robert(1984), *Primitivism in modern art*,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p.32.
- 32) “삼성디자인넷”, 자료 검색일 2010. 02. 08, 자료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 33) “보그 온라인 웹진”, 자료 검색일 2010. 02. 10, 자료출처 <http://www.style.com>
- 34) 백인홍(2003), “현대 패션에 나타난 오가닉 현상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퓨전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 전공 석사학위논문, pp.26-27.
- 35) “블리스코 비트 컬렉션”(2009. 04. 09), *AFPBB news*, 자료검색일 2010. 02. 03, 자료출처 <http://www.afpbb.co.kr>

---

접수일(2010년 4월 20일)

수정일(1차 : 2010년 6월 15일)

게재확정일(2010년 6월 21일)